ECONOMY

은행대리업 연내 도입…우체국 등서 대출·환거래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카스’ 내달부터 새 얼굴

로고·패키지 전면 리뉴얼
‘폭포’ 모티브 청량함 강조

오비맥주(대표 배하준)의 대표 브랜드 ‘카스(Cass)’가 ‘프레시’함을강조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4월부터 소비자들을 만난다.

폭포를 의미하는 영단어 ‘카스케이드(Cascade)’에서 유래한 ‘카스’는 폭포 같은 시원함, 신선함, 상쾌함을 이번 리뉴얼에 반영해 카스 특유의 청량함과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온 카스의 혁신 정신을 담았다.

브랜드 로고가 전면에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조정하고, 서체도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다. 배경에는 폭포를 연상시키는 방사형 직선 디자인을 적용해 카스 특유의 신선함과 청량감을 더 돋보이게 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카스는 오는 4월 초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스는 27일 ‘카스 프레시’를 시작으로 전 제품 리뉴얼 패키지를 자사 공식 SNS 채널에서 차례로 공개한다. 정현아 기자

금융위, 7월 시범운영 서비스…은행법 개정

다른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도 진입 허용

7월부터 전국에 2500여개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 등에서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외 다른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의 은행대리업무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도 기존 전통시장 외에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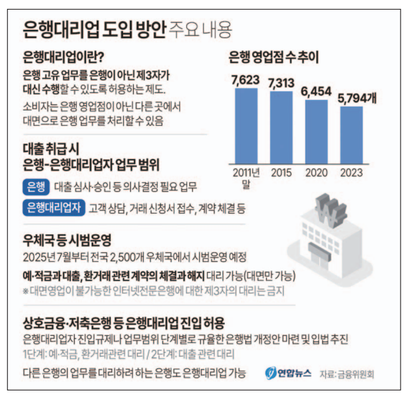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예·적금이나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은행 건전성 관리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체국은 전국에 2500개 영업점이 있고, 그동안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시범운영이 시작되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 대리 등의 은행업무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대리업무는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어 연내 은행대리업제도의 공식 도입을 위해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나 업무범위 등을 규율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1단계 예·적금, 환거래관련 대리, 2단계 대출관련 대리 등으로 단계적 입법이 추진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체국 외에도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으면 은행대리업 진입이 허용된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의 경우 신고로도 은행대리업 영위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요건이나 건전성 확보, 서비스유지와 소비자피해방지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등은 예·적금, 대출 환거래 계약 체결 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영위할 수 있지만, 은행외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관련 대리업무 허용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보해양조, ‘택시운전사×잎새주’ 2025 공개

푸른 하늘 형상화…작년 이어 4~5월 한정판매

보해양조는 27일 1200만 관객을 모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화 ‘택시운전사’를 모티브로, 지난해에 이어 ‘택시운전사×잎새주’ 2025년 한정판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잎새주의 라벨을 바꿔 한정판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 ‘택시운전사×잎새주’ 한정판은 지난해 선보인 디자인에 변화를 주면서 푸른 하늘을 형상화한 색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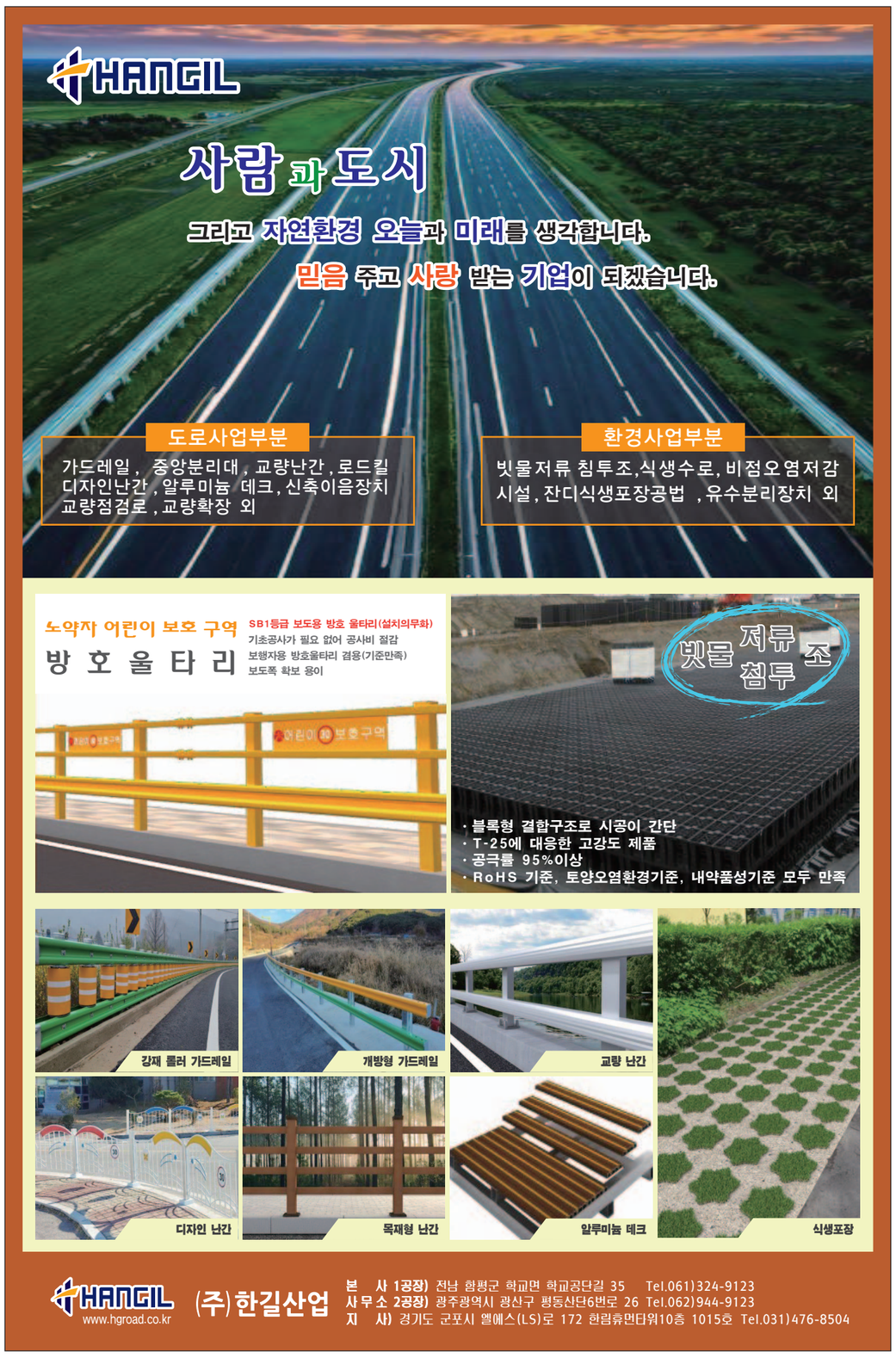
라벨의 푸른 색은 1980년 5월 자유와 정의를 염원했던 이들이 올려다 봤을 하늘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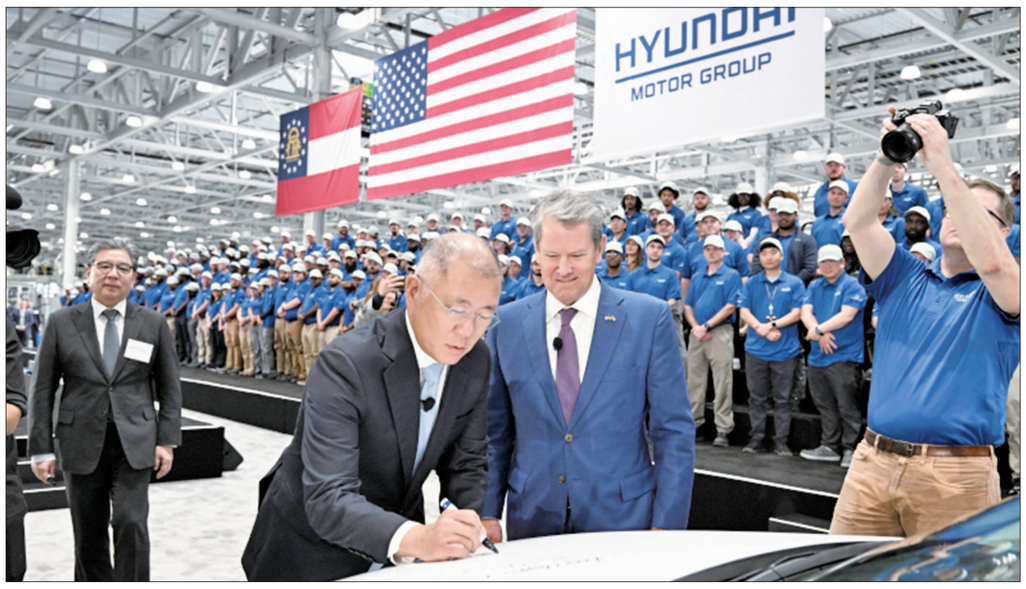
이번 라벨로 첫 번째 시리즈의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기억합니다’라는 취지에 더해 앞으로 이어가야 할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한정판은 기존 잎새주와 동일하게 16도, 360㎖ 용량이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해마다 새롭게 선보이는 ‘택시운전사×잎새주’ 시리즈를 통해 지역민들과 더욱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가 지켜온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HMGMA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생산 기지이며, 모빌리티의 미래를 현실화하는 핵심 거점이다. 사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HMGMA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5 차량에 기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농기원, 무화과 브랜드화 기술 개발·보급

스마트농업 기술 접목으로 안정적 생산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무화과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화과 브랜드화 기술 개발·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무화과는 전남도가 주요 재배지로, 2024년 기준 전남의 재배면적은 전국(1,077ha)의 68%에 해당하는 727ha에 달한다. 특히 영암(453ha, 전국 43%)과 해남(46ha)이 주요 재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화과 재배는 경험 기반의 관수 방식과 단일 품종 재배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품종 다양화와 안정적인 재배 기술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데이터 기반 농업’과 ‘품종 다양화’를 통해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노지 스마트 및 시설 재배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겨울철 안정 생산 기술, 병해충 방제, 식·향료 이용 가공제품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무화과 품종을 19.5ha로 확대 보급하고, 최근 무화과에 큰 피해를 입히는 총채벌레 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화과 관련 기술 개발을 3년간 지원하며, 주관 기관은 과수연구소로, 서울대, 목포대, 중앙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16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신기술 보급 협력모델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영암 무화과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품질 관리, 유통·판매까지 종합적인 패키지 기술을 민간 협력 모델로 10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된다.

손장환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은 “무화과의 지속 가능한 재배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은행 ‘Wa뱅크 봄운동회’

5월까지 비대면 채널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5월 31일까지 ‘Wa뱅크 봄운동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대상 상품에 가입하면, 상품별로 3000원의 응원금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원화적금(가입금액 20만원 이상), 원화예금(가입금액 100만원 이상&가입기간 3개월이상), 외화적금(미화 100불 이상), 외화예금(미화 1,000불 이상&가입기간 3개월이상), 펀드(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개인IRP(신규 가입금액 5만원 이상)이다.

또 운동회에 참가할 팀을 선택하고, 우리 팀이 이기면 상금 5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 지급한다. 참가자는 1일 1회 출석체크를 통해 본인 팀의 점수를 올리며, 우승팀을 함께 만들 수 있다.

이벤트는 최근 6개월동안 이벤트 대상 상품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광주 와(Wa)뱅크(APP)’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